

일본 사죄 끝내 못받고 한많은 삶 마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황선순 할머니 별세

장성 출신...광복 이후 돌아와 뇌경색 등 질병에 시달려

광주·전남 2명 등 생존자 54명...故황금자 할머니 1주기도

할머니는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지 못한 채 눈을 감아야 했다. 할머니는 89세가 되도록 일본의 진심어린 사죄를 기다렸지만 시간은 할머니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54명만 남아 있다. 더이상 시간이 없다.

26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황선순(사진) 할머니는 이날 오전 8시께 화순 A병원에서 노환으로 숨졌다. 향년 89세. 이날은 1년 전, 고(故) 황금자 할머니가 일

본 정부의 사과를 받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한 날이기도 하다.

1926년 장성에서 태어난 황선순 할머니는 부모님을 일찍 여고 남동생과 살다 17살 때 “부산에 있는 공장에 취직시켜주겠다”는 이웃 남자의 말에 속아 따라갔다. 황 할머니는 이후 전쟁이 끝날 때까지 3년간 일본을 거쳐 남대평양 나우르섬까지 동원돼 악몽같은 삶을 살아야 했다.

황 할머니는 해방된 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가난과 뇌경색, 당뇨 등 여러 질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故 황선순 할머니.

유족들은 “할머니가 하고 싶어했고 먹고 싶어했던 것들을 모두 해드리지 못해 죄송스럽다”고 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방문안을 갔을 때도 반갑게 맞이 해주며 ‘어서 집에 가고 싶다’며 웃었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면서 “일본의 사과도 못받고 가슴에 한이 사무쳤을 텐데...”라고 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진정 어린 사과를 반드시 받아내는 게 할머니의 한을 푸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238명 중 생존자는 54명으로 줄었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88.4세에 달한다.

최연소 피해자도 80세다. 광주지역에는 광여남(90)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힘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으며 공점업(96) 할머니는 아들 내외·손녀들과 함께 해남군에서 일본의 진심어린 사죄를 기다리고 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5 달뜨기 11:53
해질 17:55 달지기 00:29

겨울 찬바람

중국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았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2/4	보성	맑음	1/5
목포	맑음	2/3	순천	맑음	3/6
여수	맑음	3/6	영광	맑음	1/3
나주	맑음	1/4	진도	맑음	2/4
완도	맑음	3/4	전주	맑음	0/4
구례	맑음	1/5	군산	맑음	-1/2
강진	맑음	2/4	남원	맑음	-1/4
해남	맑음	2/4	홍산도	맑음	3/4
장성	맑음	1/3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1.5~3.0	북서~북	2.0~4.0
남부 먼바다	북서~북	2.0~4.0	북서~북	2.0~4.0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1.0~2.0
서부 먼바다(동)	북서~북	1.5~3.0	북서~북	2.0~4.0
면바다(서)	북서~북	1.0~2.0	북서~북	2.0~3.0

◇생활지수

동파	25
운동	60
빨래	7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7:19	12:16
19:34	00:00	
여수	01:57	07:47
	14:09	20:32

◇주간 날씨

28(수)	29(목)	30(금)	31(토)	2/1(일)	2(월)	3(화)
-4/3	-2/5	0/6	-2/5	-3/6	-1/6	-1/5



안개에 갇힌 도심 겨울비가 촉촉히 내린 26일 광주시 동구 충장동·대인동 등 도심 상공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다. 안개(가시거리 800m)는 이날 오전 10시55분 걷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기온 떨어져 다소 추운 날씨

27일 광주·전남지역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찬바람이 부는 등 다소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7일 광주·전남 지역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으나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전날보다 크게 떨어지겠다”고 26일 예보했다.

아침최저기온은 1도~3도, 낮 최고기온은 3도~7도 분포를 보이겠다. 이는 전날보다 3~5가량 낮지만 평년기온보

단 3~5도 가량 높은 기온이다.

특히 전남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질데다, 찬바람마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27일 기온은 평년보다 높지만 전날 기온보다는 3~5도 가량 낮은 만큼 시설물 관리 및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다음달 초순쯤 평년기온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국공립대 기성회비 대신 등록예치금 필수 논란

대체징수 법안 처리 늦어지자 이름만 바꿔 등록금고지서 발부

국회에서 기성회비 대체 법안의 처리가 늦어지는 가운데 국·공립대학들이 신입생들에게 기존의 기성회비 대신 예치금을 걷기로 했다. 26일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에 따르면 국·공립대들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기성회비 항목을 예치금으로 변경한 신입생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한 국립대 총장은 “사립대들이 신입생 등록을 받고 있는데 국·공립대들도 신입생을 확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성회비 대체 법안의 통과가 늦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기존 기성회비 항목을 바꿨다”고 말했다. 다음 달 발부될 재학생 등록금 고지서에도 예치금 항목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국·공립대는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다. 기성회비 대체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운영에 쓸 계획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한꺼번에 걷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을 제출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과 입장 차이로 법안 처리가 2월로 미뤄진 상태다. 기성회비 반환 소송의 1·2심이 모두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자 대학 재정을 보전

하기 위한 대체입법이 추진됐으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다음 달 예정돼 있다.

그러나 국·공립대가 과거 기성회비를 예치금으로 총당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계속 학비 부담을 주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학생들은 그동안 정부가 국·공립대 교육 재정을 확충해 기성회비 폐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대학교육연구소도 국·공립대 총장들이 기성회비 문제를 열광통망 넘어가려는 ‘꼼수’를 부린다고 “정부는 수십년 동안 학생, 학부모가 부담하게 부담해온 기성회비를 국고로 총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재선충 확산...3년내 소나무 사라질 수도”

녹색연합 “정부 안일한 방제책”

정부의 안일한 방제 대책으로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재선충 확산을 불러 3년 안으로 국내에서 소나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녹색연합은 지난 20일 기준으로 소나무 재선충 피해는 광양, 순천 등 전국 72개 시·군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태로 이 속도로 확산할 경우 이르면 3년 안에 소나무가 국내 산림에서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26일 밝혔다.

소나무 재선충 피해 지역은 지난 2011년 46개, 2012년 50개, 작년 64개 시·군으로 확산하고 추세다. 피해 나무 수도 2010년 13만 그루에 그치던 것이 2012년 52만 그루, 2013년에는 218만 그루까지 늘어났다. 재선충병은 소나무 에이즈로 불린다. 지난 2013년 9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기 시작한 재선충은 정부의 방제작업에도 남해안 지역과 제주도는 물론 백두대간까지 번지고 있다는게 녹색연합 측의 설명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햇살론대출
- 임대보증금대출
- 정부정책자금대출
- 일일상환대출

* 근거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